

## 사대문(四大門)안의 도시와 건축

### The Architecture and Urban Planing of Central Seoul

최승원 / 양기주망 건축사사무소  
by Choi Seung-Won

정부청사가 옮길 예정이고 청계천 고가도로와 복개를 없애고 있고 시청 앞이 시민의 광장이 되려고 움직이는 것은 서울의 역사 이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커다란 경주가 변하여 역사 속의 작은 도시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서울의 건축과 도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서울을 손질할 수 있는 기회는 6.25전쟁 직후 한 차례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5.16직후 경제 재건 전에 있었으나 모두 기회를 놓치고 현재에 와 있다. 지금은 큰 기획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 문화·관광·금융·교육의 중심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 중 교육의 개방 및 교육 시스템의 자유로운 도입 실천이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서울이 100년 전에는 초가집이 주축을 이루는 생태적인 고도이었으나 중국의 몰락으로 문화권이 바뀌고 주변 강국들이 넘나들면서 4000년의 문화 환경이 빠른 변혁을 시작한 것이다. 60년 전에는 일본집들이 꽤나 많이 보였으나 소멸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전후 10년 간은 매우 어렵고 빈궁한 도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전쟁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으로 문화 유산이 난도질당한 나라가 되었다.

말과 마차의 시대에는 사람이 주택과 도시의 중심에 있었으나 지금은 50~60년대 영화(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나 그 일부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자동차가 도시의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기는 오염되고 스모그·안개·황사 등이 겹칠 때는 아름답고 활기 있는 서울의 기운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 공공시설에서 금연하듯이 서울도 금연의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 대구시가 조경정책으로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있듯이 서울도 서울의 철학을 세워 변화하는 도시에 힘을 실어야 한다.

도시는 생로병사 하는 것이다. 병든 다음에는 죽는 것이다. 대도시들이 병들어 있어 갑자기 전쟁이나 질병, 기아 등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 외과적 수술도 필요하겠지만 서울의 수명연장을 위해 서서히 서울에 새 기운을 넣을 필요가 있다.

서울의 환경에 대하여 실망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면 50년 후에는 새로운 서울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울을 병들게 하는 것은 자동차의 동맥경화증이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겠지만 우선 사대문안에는 주말에 자가용차의 출입을 금지하자. (자동차를 서울에서 비워보자) 이것이 시행되면 공기는 맑아지고 보행자의 거리가 확대되고 도심의 식물녹화에 도움이 되고 캠페인으로 관광객이 증가 될 것이다. 또 일방통행 강화로 2개 차선을 녹지화할 수 있고 1개 차선을 자전거에게 주자.

사대문 안에 건축 시 더 이상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 건축법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없애자. 주차장 건설이 차를 부르면서 악순환 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은 무조건 전차도 좋고 GAS 튜브 버스도 좋다.

하천 위에 지은 아파트들을 철거하고 사대문안의 새로운 고층 아파트 건설을 중지하여 사대문 안의 경관을 살려 나가자. 일본 강점 시대에 잘린 성을 더 복원하면서 공원 개념을 추가시키고, 각 대문의 양쪽날개를 복원하고 날개 밑으로 반지하 도로를 만들어 차가 다니게 하자. 남아있는 달동네도 보호하고 한옥 마을도 살려 나가자.

건축은 정체성이 있으면서 사대문안에 어울리는 건축이 필요하다. 동경이나 뉴욕의 축소판 식을 버리고 우리의 서울을 꾸며 보자. 간판 없는 도시를 정보 통신 기술로 만들고 간판 낭비와 어지러움을 벗어나 보자. 거리 이름과 건축 번호도 간판 전화 번호 옆에 추가하여 그것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궁궐을 복원하면 문화 시설로 사용하자. 고궁으로 역사극이나 만들어 옛사람들이 암투를 벌이는 모습만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면 현재와 같은 정치를 치유할 수 없다고 본다. 복원된 수원 행궁에 기대를 걸어본다.

현대 건축은 지하 주차 문제로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위한 계획이 아니 되고 지하 주차장 건설 때문에 7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는 실정이다.

현재의 교통시스템이 바뀔 때가 되었다. 과소비의 비만증 건축·도시가 다이어트를 하여 사대문안을 비워 나갈 때 현재 도시의 현대병이 치료되어 나갈 것이다.

경기도청 서울시청도 없애고 경기도와 서울이 합하여 수도권청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정부청사 이전 후 과천 청사로 입주할 수도 있다. 행정조직 축소와 효율

적 운영은 국가 경영에 중요하다.

사대문 안이 사람 위주로 다시 살아난다면 동아시아 중심도시로 파리나 부다페스트 같이 세계 사람이 가고 싶은,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받고 싶은 메카 도시로 꾸밀 수 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관광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투명한 건축과 도시가 보일 것이다.

정부청사도 옮기게 되고, 청계천도 변하고 시청광장이 변하는 것이 현실인데 정치인·행정가·전문가들이여 무엇을 망설이는가? 청계천 복원에 불만이 있으면 생태적으로 하자고 적극 나서자.

우리에게 무엇(대운 또는 악운)이 오고 있다. 현실로 그림을 그리자.

백제의 수도 같이 후퇴하지 말고 정부 청사의 위치도 서울과 평양 중간에 20년 목표로 건설되면 자연스럽다. 100년간 홍콩을 빌려 쓰듯이 50년간 빌리고 힘을 내보자. 통일 준비금도 필요하기에 정부 청사 이전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베를린이 섬 같이 동독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요긴하게 꾸미고 있는가. 금강산을 사용하듯이 인구밀도 적은 북한 지방을 청사 기지로 정하고 브라질 신수도와 같이 새로운 국제 관광지가 되게 하자. 그리고 고속기차를 연결하자.

도시 내에 성이 있는(수원, 전주 등) 모든 도시는 나이갈 바를 고민해 보자. 물량 위주의 설계를 버리고 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할 때 건축과 도시가 튼튼해 질 것이다.

건축 혼자 잘 해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북의 정치인들이여, 건축 도시 전문가들이여, 민족의 그릇을 키워서 문화 대국의 천년을 시작합시다! ▣